"험산준령 넘어 새지평 열때까지"

특집 새정부 노동정책에 따른 노동운동 향방 모색

'신한국' 허울속 자본위주 노동통제 강화
민주세력 조직강화로 사회발전 주체돼야

과연 한국에도 진정으로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인가?

특히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난이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노동정책의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이란, 경제의 효율성 혹은 경쟁력 강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극도로 악화되어 왔던 분배구조의 개혁이 포함될 때 의미가 있으며, 분배구조의 개선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새정부가 빈익빈 부익부의 왜곡된 분배구조의 해결, 정경유착, 부패한 경제활동의 척결, 각 부문의 균형성장의 토대가 될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보장, 사회보장의 확대를 기초로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건전한 경제발전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배구조의 왜곡과 심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방적인 임금억제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일방적인 고용조정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파견법 도입을 강행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묵인한 것인지, ILO의 관결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수노조금지, 공무원 단결권 제한을 고집하면서 자본측의 입 맛에만 맞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함으로써 일방적인 노동통제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예전처럼 노동자라는 이름만으로 일방적인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만 들면 상황이 뒤틀어 진다면 '신한국'이란 결국 '독재시대'와 별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신한국'은 노동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새정부의 노동정책은 기대나 우려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더욱 더 공세적이고 치밀한 노동통제정책으로서 노동자를 짓누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신노동정책, 즉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동조합 운영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용자 위주의 일방적인 노동자 제련과 노동통제정책을 지원하는 방향, 즉 일방적인 생산성 향상운동(신인사관리제도·작업조직재련·인사경영련 단협배제 등), 상급단체(한국노총) 중심의 노사관계 관리강화, 고용유동화(대량감원·임시고용 형태의 확대) 정책이 요체를 이루고 있다. 이미 '행정규제 완화위'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도 주로 경제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파견법, 변형근로시간제, 휴일축소 등이 주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얼핏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노사 자율적인 임금교섭 유도'의 경우 조차 전체 노동자의 처지와 요구를 외면한 채 어용노총과 경제단체간의 밀실협상을 통해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은 국제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 온갖 화려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렴치한 수준이다.

따라서 93년 민주노조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는 '민주노조 총단결'로 임금억제정책, 고용불안, 노동법개악기도를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조운동은 ILO의 관결 즉 노동조합법 3조5호 (복수노조 금지조항, 한국노총 위주의 노조체제 강제조항)의 철폐, 공무원 단결권 보장, 3자개입 금지조항 철폐 등을 계기로 집중적인 민주노총 건설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전노협과 업종회의, 주요 대공장노조, 기타 각지역의 광범위한 민주노조 들이 총결집하여 80만 조합원에 달하는 '전국노조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5월1일 노동절투쟁을 계기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과정에서 점차 제조업내에도 업종연맹체계를 갖춰낸 후 민주노총을 건설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조직발전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곧바로 임금억제정책, 고용불안 노동법개악 등에 대한 공동대응과 긴밀하게 결합될 것이다. 이와함께 각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을 한단계 높여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새정부가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이데올로기공세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투쟁과 노동법개정투쟁, 고용보장제도 쟁취투쟁을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여 대다수 국민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노동조합의 활동에서 이점을 유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진행은 93년 상반기에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정치적 쟁점화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는 활동에 촛점을 두며, 임금억제정책을 돌파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섭력을 높이고, 교섭타결시 공동임투의 원칙(총액제 거부, 타결시 노조간 상호협의, 제도개선 요구 절합, 무쟁을 조직하여 임금인상 부쟁과 병행시키되 국민대중과 함께 제불임금의 청산과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한 제도정책적 대안 제시, 경제민주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철저하게 정치, 경제, 사회의 민주화를 추구하고자하는 노동조합운동의 대의를 헙값에 팔아넘길 수 없다. '험산준령을 넘으면 탁트인 지평이 열린다'는 말이 있다. 93년 상황이 바로 그렇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어려운 상황을 계기로 철만노동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민중운동과 민족민주운동 전체가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새로운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급성장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 우 현
〈전노협 정책위원〉

한주메모

▲14일—한국은행 조순총재 해임에 대해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각계 비난. 한은노조, 김명호 새총재 불복종운동퍼기로 결의.

—김대통령 "위안부보상 일본에 요구않기로"발표. 진상규명촉구는 계속요구.

▲15일—정부, 지방예산대폭삭감추진 발표. 20일까지 천감기준 확정키로. 정부세출도 5천억 규모로 축소예정.

—대북 고위급접촉제의. 빠른 시일내 핵확산금지조약탈퇴철회촉구, 현안 등 논의위해.

—중국 공산당 제8기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 헌법개정 등 16개안 처리.

▲16일—실명제 "임기내 실시"로 후퇴. 총격최소위해 검진시행. 경제활성화 추진.

—김대통령, "북한핵문제 해결돼야 경협허용"발표. 텀스피리트훈련후 미국 전력 잔류요청도 고려중.

—한완상통일원장관 통일기본정책 발표. △민족특리 △남북한 공존공영 △국민적 합의.

—중국 리평수상, 고도성장정책 선언, 경제성장 6%서 8%로 올려.

—75년8월 장준하씨 죽음에 대해 정치적 타살가능성 제기돼. 사제김안의사 증언 "검시관련, 정보부서 협박"

—3·6 석방자환영및양심수전원석방 촉구대회'동국대서 5백여명 참가. 모든 양심수 석방촉구.

—재무, 건설행정규제완화방안 발표. 중소업체 회사채 발행제한없애. 용통어음도 할인아파트 분양값 단계적 자율화.

▲17일—리철 북한제네바대사 △'팀'영구중지 △미, 북한핵위협중지 △국제원자력기구 공정하게 운영등 반아들이면 핵금지조약 복귀교섭용의 발표.

▲18일—미, 북한대화합의. 북경서 비밀접촉. 팀훈련끝난 뒤 만나기로 중국주선.

—미, 한국반도체덤핑판정. 평균3.19% 수출위축없을듯.

—실명제 조기시행백지화. 재무장관 공식발표. 6월말 기본방향만 제시. 2단계 금리자유화도 하반기 이후로 연기.

—한국자동차보험, 노조탈퇴강요. 특별정신교육실시. 노동부, 위법땐 사법처리방표.

▲19일—비정향장기수 이인모씨 송환, 판문점통해 42년 7개월만에 가족품으로.

—미, 러, 영 등 NPT기탁국탈퇴철회촉구 대북성명할듯.

—장관급 29명 재산공개. 비서실장, 청와대수석 등 11명도

—김대통령 망월동참배부산. 전남, 광주 순시중 '5·18간담회'도 취소.

—대리응시주범 칫공판때 12년구형. 브로커 7명엔 10—3년.

—중국, 대영경제보복경고 홍콩민주화, 개혁정책철회재촉구.

▲20일—정부공직자재산공개 법제화. 실무작업착수, 윤리법제정. 공개원칙 명시.

—그루지아, 러시아전투기격추. 정찰임무 수호이27전투기 조종사 사망. 양국관계긴장 최악상태.

현장취재

"시혜 아닌 정당한 복적 위해 투쟁할터"
—전복추위 단식농성을 다녀와서

지난 18일 명동성당에서는 '전국제적생복적추진위원회'(이하 전복추위, 회장 김정호, 동의대 4년 제적)의 단식 투쟁이 있었다.

5공치하 제적생이 '민주투사'의 대접을 받으며 당당히 복학한 것과 대조적으로 6공 제적생들은 사회의 관심 밖이다. 아니 오히려 패륜아 취급을 받고 있다.

89년 5.3동의대 사건, 91년 6.3외대 사태로 제적된 학생들은 맨 먼저 언론의 공격을 받았다. 사태의 원인과 본질, 과정을 누구보다도 알정서 과해처야할 언론이 패륜아 취급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89년 서울교육대에서는 합의각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기성회비 인상 반대 투쟁으로 한 학생이 분신자살하고 32명이 제적당했다. 학내 문제로 역시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학생제적,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시혜가 아닌 정당한 복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단식 가운데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임수경(전복추위 부회장, 서울교대 4년 제적)양의 당찬 결의다.

학내 민주화를 위해서 힘차게 투쟁했던 그들은 다시 한번 힘겹고도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가냘픈 손가락으로 대자보를 쓰는 한 여학생의 손은 쌀쌀한 바람 속에서 더욱 시리게 보였다.

〈김중석 記者〉

시사상식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과세의 과학화로 분배정의 실현

부와 관련한 행정이 깨져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융성적인 지하경제가 만연할 때 건전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공평한 부의 분배와 내실있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거래자가 실지명의를 사용하여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등을 포함하는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가명이나 무기명거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실시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 부의 이전과 관련한 과세의 과학화로 형평을 고려한 분배정의및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건전한 자금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의 금융시장 이탈, 실물자산(골동품, 그림, 귀금속)에 대한 투기, 그리고 자본의 해외유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외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실시과정에서 저축감소, 자금의 해외유출, 증권시장의 혼란 등을 겪었다. 강행법에 의한 무리한 행사와 금융종합과세제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의 결과다.

이와같은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실시가 요청된다. 즉, 1단계 은행 및 제2금융권 예금 실명제, 2단계 주식등 유가증권 실명제, 3단계 금융전산화에 의한 종합소득과세체계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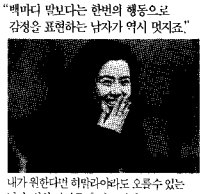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82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 차등과세제를 도입하여 실명 과 가명(무기명포함)의 소득세를 차별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실명화율은 은행 금융자산이 금액기준 98.6%, 증권시장 계좌는 싯가총액의 9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명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전산화, 비실명금융상품의 축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한 조처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금융실명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분석과 과정이 지양되어야한다.

구 기 동
〈대학원 석사2기·경영학〉

우리시대의 미스터….행동파는?

"백마디 말보다는 한번의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남자가 역시 멋지죠."



내가 원한다면 하얀리어라도 오를수 있는 남자, 심한 말다툼 후에도 먼저 꽃을 사들고 집앞에서 기다리는 남자.
한마디로 말로만 좋아한다고 속삭이는 남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남자가 진짜 멋진 행동파 아닐까요?

이화여대 장식미술학과 3년 신수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남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남자가 우리시대 최고의 남자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자는 정말 왕재수예요. 며칠전, 길을 가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사람을 업고 뛰는 남자를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같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대에서 남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정의파, 우리시대 최고의 행동파라고 할 수 있죠.

한양대 관현악학과 3년 박경현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우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라면…"

둘이서 싸움판을 벌이라는 판에게 꽤장만을 느끼게 해주는 남자, 순수하게 친구의 관심과 애정으로 어려운 고민을 함께 해주는 남자. 여자를 무조건 이성상대로만 생각하는 감감한 남자보다는 이성간의 우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라면 여자쪽에서 오히려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홍익대 목공예학과 3년 박한진

"신발리 유행만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개성이 드러나는 남자,어디 없나요?"

값비싼 외국 브랜드의 옷만 고집하는 남자, 요즘은 유니섹스의 시대이을 외치며 여자나 유치한 애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 정말 꼴불견이죠.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개성에 맞게 옷을 잘 소화해 어리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남자의 멋이 드러나는 남자가 멋졌이 행동파라고 생각해요.

—행동하는 젊음, 미스터 빌트모아입니다.—

행동파 활동정장
BILTMORE